

인삼 품종특성에 따른 재배기술

김영창 인삼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출 1등 농산물, 인삼

인삼은 수 천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신비의 영약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특산물이자 대표 문화상품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삼중주국으로서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 인삼은 80여 개국에 1억불 이상을 수출하여 농산물 수출액 중 1위를 차지한 매우 중요한 작물이기도 하다.

인삼품목 중에는 홍삼류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인삼뿌리 모양을 그대로 갖춘 원형홍삼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아직도 미흡한 인삼 품종보급

홍삼은 천삼, 지삼, 양삼으로 등급이 구분되는데, 이 중 농가 포장에서 천삼으로 가공할 수 있는 원료삼의 수확은 1% 정도로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농가가 옛날부터 재배해 온 혼계 상태의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과 형태가 불균일해져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배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높은 등급의 수삼생산과 좋은 홍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우수 체형과 품질을 보유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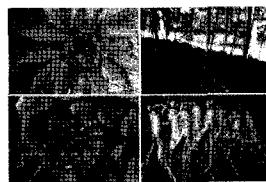
현재 인삼은 9개 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개발

된 품종들의 재배면적은 전체 인삼재배면적의 10%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은 품종개발부터 보급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 이는 인삼이 3년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종자를 수확할 수 있으며, 한 생육기 동안 1회만 채종하고 종자량도 적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인삼품종은 천풍, 연풍, 금풍 등이며, 이밖에 고품, 선풍도 일부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다른 4개 품종(선운, 선원, 청선, 선향)은 최근에 개발되어 아직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농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천풍, 연풍, 금풍의 주요 특성과 최고의 품질 및 수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 재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삼 주요품종별 특성과 재배방법

청풍 : 줄기색은 모종삼과 2년생이서만 자색이고 4년생 이상에서는 줄기색이 기부와 잎자루가 갈라지는 부분만 자색이고 나머지는 녹색이다. 잎의 형태가 약간 말리는 형이고 가을 단풍 시 잎 색깔이 노란색에 약간 붉은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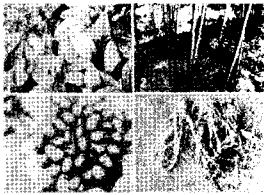
1. 잎, 2. 줄기, 3. 열매, 4. 뿌리

완전히 익은 열매색은 등황색이고, 동체가 긴 원통형으로 수삼체형이 우수하다. 천풍은 적변발생이 적어 배수가 문제시되는 농

재배에도 알맞으며, 점무늬병에도 중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천풍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특히 수삼 체형이 우수하고 천지삼 제조수율이 매우 높아 홍삼제조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천풍은 개화가 약간 늦게 되어 등숙도 늦어지므로 다른 품종과 같은 시기에 수확하여 개감하면 개감률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경우 개감 전이나 개감 후기 때 지베렐린(GA3)을 처리해 개감률을 높혀 완전히 개감된 후 파종하는 것이 좋다.

연풍 : 줄기는 길이가 짧고, 연한 자색이다. 작은 잎 수는 많으며 모종삼 때부터 턱잎의 발생이 많다. 가을 단풍 시 잎 색깔이 붉은색이며, 열매 색은 홍색이다. 줄기는 4년생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다경 개체가 많다. 동체가 짧고 굵은 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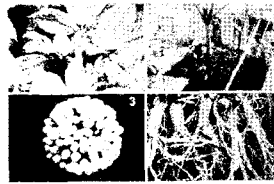


1. 잎, 2. 줄기, 3. 열매, 4. 뿌리

형이며, 적변발생은 천풍보다 높게 나타난다.

연풍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특히 4년생 이상에서 다경 발생이 높아 수삼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한다. 홍삼원료용으로 재배되지만 수삼재배를 목적으로 할 때 유리하다. 재배시 유의할 점은 줄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재래종이나 다른 품종처럼 단위면적당 같은 개체수를 재배할 경우 지상부 과번무로 인해 병해나 웃자랄 수 있으므로 4년근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1칸(90×180cm)당 54~63본으로 이식하고, 6년근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45~54본으로 이식하는 것이 좋다.

금풍 : 줄기는 녹색이며, 잎 단풍색은 노랑고 꽃대의 길이는 중간이다. 열매는 노란색이고 열매송이모양은 부채꼴형이다. 뿌리는 미색이며 출아기는 중간이다.



1. 잎, 2. 줄기, 3. 열매, 4. 뿌리

금풍은 체형도 우수하며 대편심이며 병해에도 강한 편이다.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양분이 과다한 포장에서는 고년근(4~6)으로 갈수록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정지 관리 시 양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 기우려야 한다.

기타

고풍을 비롯한 나머지 품종은 아래 표에 나타난 특성과 같다. 이들 품종들은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품종들의 주요 특성이 홍보되면 보급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인삼의 품종과 주요특성

품종명	등록연도	주요특성	용도
천풍	2002	우수체형, 내적변	원형홍삼용
연풍	2002	다경, 다수성	수삼용, 엑스용
고풍	2003	고사포닌, 우수체형	원형홍삼용
선풍	2003	대편심	원형홍삼용
금풍	2006	내병성, 우수체형, 황숙종	원형홍삼용
선원	2006	다수성, 우수체형	원형홍삼용
선운	2006	다수성	원형홍삼용
청선	2007	청경종	원형홍삼용
선향	2009	황기성분 고품유	원형홍삼용

대부분의 인삼 품종별 재배법은 큰 차이가 없으나, 품종 고유특성을 이해하면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정지 관리와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월호〉